

##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특징

교수 박사 김 경 식

###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 문학작품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대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95페이지)

유럽에서 사실주의는 인문주의, 계몽주의, 비판적사실주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이어지면서 발전풍부화되었다.

사실주의의 출발점은 인문주의문학이다. 인문주의문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전형화하여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을 제일먼저 미학원칙으로 제시하고 구현한것으로 하여 유럽문학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실주의문학사조로 되었다.

그러므로 인문주의문학에 대한 연구는 사실주의의 발생과 진보적문학의 발전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4—16세기에 유럽적인 판도에서 발생발전한 인문주의문학은 그 특성과 발생발전과정, 다른 문학과와의 관계와 문학사적위치 등에서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면서도 매개 나라의 문학은 자체에 고유한 특성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이 문학이 발생발전한 나라들의 사회력사적조건과 환경이 서로 달랐기때문이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특징은 그 문학의 발생발전과정과 사회적운동과의 관계, 문학의 계급적성격, 내용과 형식 등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론문에서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나라들에서 발생발전한 인문주의문학에 대한 대비분석을 통하여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특징을 해명하려고 한다.

### 2. 본 론

#### 2.1. 발생발전과정에서의 특징

16세기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빨리 발전하고 민족적통일이 이루어졌으며 부르주아세력의 지지밑에 왕권의 중앙집권적권력이 강화된것은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발생발전의 특징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발생발전에서 찾아볼수 있는 특징은 우선 민족적통일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생겨난 문학이라는것이다.

인문주의문학이 존재한 나라들의 경우를 놓고보면 대체로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하여 민족적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의 발전에 토대하여 이 문학이 생겨났다. 결과 이 나라들의 인문주의문학에서는 민족의 통일과 민족어의 형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인문주의문학이 발생하던 시기 이탈리아에는 도시공동체들이 존재하였다. 도시들에

서 활발한 무역중개업과 상업활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비대해진 부르조아지들의 사회진적출과 자본주의적생산관계의 확립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문화의 출현을 요구하였다. 이탈리아인문주의자들은 심히 분산되어있던 자기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처음부터 민족통일에 대한 지향을 표현하였으며 라틴어를 배제하고 민족어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을 벌리었다.

영국에서는 15세기말부터 봉건절대주의가 출현하고 그속에서 야만적인 자본주의시초축적이 진행되었다. 왕권과 대봉건령주들의 억압과 부르조아지들의 무제한한 착취는 영국의 농민들과 도시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농민봉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인문주의문화가 창조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시기 영국인문주의문학에서는 정치적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요구가 문학작품들에서 나타났다.

도이칠란드에서는 15세기말부터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카톨릭교회의 전횡이 극도에 이르고 지역적분산성이 심한 탓에 대봉건령주들간의 싸움이 그칠새없어 나라의 안정은 심히 파괴되었다. 도이칠란드의 부르조아지들은 유럽의 무역통로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자기 나라의 지리적특성을 리용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시켜나갔다. 부르조아세력은 날로 강화되었으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볼 때 매우 미약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이칠란드에서는 봉건적농노관계가 여전히 지배적이였다.

14-15세기의 네덜란드는 대봉건령주들이 판을 치는 매우 분권적인 나라였다. 15세기말에 합스부르크왕조에 병합되었던 네덜란드는 16세기에 독립되었다. 그러나 왕권의 무능과 카톨릭교회의 광신적인 탄압소동으로 하여 중앙의 권력은 약화되고 나라는 분열위기에 처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주로 유럽의 해상국가들과의 활발한 무역과 교류를 통하여 부르조아적발전이 다그쳐지고 당시의 시대사조인 인문주의가 침투하였다.

에스빠냐에서는 중세기말에 도시들이 늘어나고 부르조아세력이 크게 장성하였다. 왕권은 부르조아세력의 지지밑에 1435년부터 대령주들을 격파하고 일단 세력이 강화되자 이번에는 도시공동체들을 무자비하게 압살하였다. 카톨릭교회는 왕권과 결탁하여 무제한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카톨릭교리와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카톨릭교회의 뒤받침을 받는 절대군주제의 형성으로 해서 에스빠냐에서의 부르조아적발전은 더디여지게 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15-16세기에 인문주의문화가 발생발전하였다. 바슈꾸 다 가마, 까브랄과 같은 항해가들에 의하여 다른 대륙들에 대한 탐험이 남먼저 시작된 포르투갈은 자본주의산업이 빨리 발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 봉건통치층은 광신적인 카톨릭교회의 지지밑에 나라의 권력을 틀어쥐고 폭압정치를 실시하여 자본주의적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극도의 종교적광신주의는 반유대인소동을 산생시켰고 번창하던 상공업과 은행업을 파산으로 몰아넣었다.

이처럼 카톨릭교회의 광란적인 폭압과 라틴어강요로 하여 에스빠냐, 포르투갈에서는 민족어를 수립하는 문제가 난관을 겪고있었다.

그리하여 서유럽나라들의 인문주의문학에서는 민족통일에 대한 지향과 민족어수립에 대한 요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같이 제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5세기말에 이르러 민족통일이 이룩되었다. 독자성이 강하던 봉건령주들과 도시들은 하나로 결속되었고 국가의 중앙집권적성격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지방마다 심한 차이를 가지고있던 언어들은 프랑스어로 통일되고 민족어에 기초한 공통적인 문

화가 창조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는 처음부터 귀족들과 교회인물들의 정신도덕적추악성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 인문주의리상을 그려보인 작품들이 기본을 이루고 민족통일에 대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데 빼리에, 라블래 등 인문주의작가들은 대체로 프랑스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16세기 말엽에 이르러 대귀족세력들과 종교개혁운동을 둘러싼 교파간의 피비린내나는 싸움으로 해서 프랑스는 위기에 처하였으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던것만큼 국가통일에 대한 지향은 주제로 제기되지 않았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발생발전에서 찾아볼수 있는 특징은 또한 이 문학이 짧은 기간에 빠른 발전을 이룩한것이다.

문예부흥운동이 제일먼저 일어난 이탈리아에서는 인문주의문학이 14세기부터 두세기반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존재하였으며 이 기간에 보카치오, 빼뜨라르까, 아리오스토, 캄빠넬라 등 이름있는 작가와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에스빠냐인문주의문학은 15세기 중엽부터 한세기반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소설문학을 발전풍부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에스빠냐인문주의문학의 대표자는 셰르반페스, 데 로야, 데 루에다, 로빠 데 베가이다.

영국에서는 15세기말부터 문예부흥기가 시작되었고 인문주의문학은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영국인문주의문학은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늦게 발생한탓에 다른 나라들의 창작적성과들을 받아들이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영국인문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셰익스피어와 토마스 모어이다.

뽀르뚜갈에서는 문예부흥운동과 인문주의문학이 15세기 중엽부터 한세기반에 걸쳐 발전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이탈리아인문주의문학을 모방하면서도 에스빠냐와 네데를란드의 영향밑에 민족적정서가 짙은 문학작품들이 주로 창작되었다. 그 대표자들은 데 미란다, 리베리, 비쎄페, 까모에스 등이다.

도이칠란드에서의 문예부흥운동은 16세기부터 학문과 사상, 조형예술분야에서 활발히 벌어졌으나 문학분야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이룩되지 못하였다. 네데를란드에서의 인문주의운동은 15세기말부터 16세기까지 주로 사상과 미술분야에서 벌어졌고 그외의것은 특별히 알려진것이 없다.

이처럼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인문주의문학은 대체로 한세기이상에 걸쳐 발생발전하였으나 일부 나라들을 내놓고는 그 성과가 별로 크지 못하다.

이에 비해볼 때 인문주의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또 인문주의가 발전할수 있는 조건들이 비교적 충분히 마련되어있던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늦게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인문주의문학이 발생하였다. 인문주의사상이 급속히 전파되고 고대연구의 구호밑에 인문주의문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것은 16세기 30년대이다. 이 문학은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 전진하다가 70년대에 이르러 새로 도래하는 문예사조들과 혼탕을 이루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존속기간은 불과 반세기가 좀 넘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은 짧은 기간에 이탈리아나 에스빠냐가 이룩한 문학적성과들을 따라잡았고 이름있는 작가들을 적지 않게 배출하였다. 소설가들인 라블래(1494-1553), 데 빼리에(1498-1544?), 마르그르뜨 드 나바르(1492-1549), 시인들인 마로(1496-1544), 쎄브, 《쁠레야드》파의 7명 시인들, 도빈네(1552-1630), 극작가들인 조델, 가르니에(1545-1590), 산문가들인 몽뎬뉴(1533-1592), 장 보댕(1530-1596), 라 보에띠(1530-1563) 등의 창작은 프랑스문학사만이 아니라 유럽문학사에서 당당히 한페이지를 차지하고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발생발전에서 찾아볼수 있는 특징은 또한 이탈리아인문주의의 영향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강하게 받았다는데 있다.

이탈리아인문주의사상과 문학작품들이 프랑스에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14세기말부터이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 영향을 준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향락주의와 플라톤주의는 이미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학작품들의 경우에는 그 매개물이 라틴어인것으로 하여 비교적 느리게 대중속으로 파급되어갔다. 실례로 이탈리아단편소설집 《데까메론》(1350-1353)에 들어있는 《기스몬다공주이야기》는 이탈리아사람인 레오나르도 브루니에 의해 먼저 라틴어로 옮겨진 후 프랑스에 들어왔다.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인문주의문학이 대대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것은 뻬뜨라르까의 시집 《승리》가 번역되어 보급된 때(16세기 30년대)부터이다. 그후 번역작품들은 급격히 늘어났다. 비록 한세기나 뒤떨어져 이탈리아문학이 보급되기는 하였지만 번역문들가운데는 서사시로부터 서정시, 희곡, 소설, 정치론문에 이르기까지 없는것이 없었다.

프랑스는 인문주의문학의 전파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프랑스를 통하여 먼저 발전한 이탈리아와 에스빠냐의 인문주의문학의 성과들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인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이 서유럽의 일부 나라들로 보급되어 인문주의문학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일부 나라들의 인문주의문학에서 이탈리아식보다 프랑스식이 더 강한것은 그 뚜렷한 증거로 된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발생발전에서의 특징은 또한 인문주의문학에 대한 학술적연구와 문학창작이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16세기는 본격적인 미학탐구의 시기였다고도 할수 있다. 이 시기에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인문주의미학론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에 기초하여 창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에서는 연구만이 앞서고 창작이 따라지지 못하였는가 하면 창작성과는 있으나 문예부흥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매우 뒤떨어졌다.

에스빠냐에서는 카톨릭교와 절대군주제의 심한 탄압으로 해서 인문주의문학에서 심오한 미학도사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였으며 자기 나라의 중세 인민문화와만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에라스무스의 심오한 학문적연구가 있었으나 의의있는 문학적성파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도이칠란드, 스위스의 경우에는 종교개혁운동의 테두리안에서 인문주의운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다나니 학술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문학창작은 매우 저조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인문주의미학론에 대한 탐구와 문학창작이 밀접한 결합을 이루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장 물리네(1435-1507), 뻬에르 화브리(1450?-1535?), 토마 쉐비에(1512-1589), 작끄 뵈르피에, 듀 벨레, 롱싸르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인문주의문학창조와 관련한 저서들에서 가치있는 미학적견해들을 제시하고 창작에서 구현하였다.

## 2.2. 종교개혁운동과의 연관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특징은 이 문학이 종교개혁운동과 각별한 연관관계를 맺고있는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연관을 볼수가 없다. 문예부흥의 조국인 이탈리아는 개혁운동을 벌리기에는 카톨릭교회의 영향력이 너무도 강하였고 에스빠냐와 포르투갈에서는

절대군주제가 자국내의 카톨릭교세력과 매우 밀착되어 반카톨릭교적요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종교개혁운동이 강하게 일어난 도이칠란드에서는 인문주의문학이 별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운동은 인문주의운동과 비교적 결합되었지만 왕권과 교회의 분립을 주장한것으로 하여 다른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만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사회적운동이 문예부흥운동 특히는 인문주의문학과 이러저러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카톨릭교회는 대봉건토지소유자로서 봉건제도를 신성화하고 유럽나라들의 진보적발전을 가로막는 제동기적역할을 하였다. 하여 카톨릭교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갔다.

날로 더해가는 부정부패행위는 교회가 드러낸 추악한 모습이였다. 교회당과 수도원에 있어야 할 교회상층이 화려한 궁중에 거처하면서 사치한 생활을 누리는가 하면 비성직자에게 교회수당금이 지불되고 이중으로 성직금을 타먹는 험잡현상이 만연되였다. 교회하층에서는 성서도 변변히 해석할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날치고 사원의 몰락으로 인하여 여기저기 떠다니며 비력질을 하는 동냥승려들이 수없이 늘어났다. 하등의 의의도 없는 유물숭배와 손해가 공공연히 강요되고 면죄부를 팔아 치부하고 방탕한 생활을 누리는자들이 차고넘쳤다. 게다가 로마법왕청의 무제한한 권력람용과 파중한 세금부담은 프랑스뿐아니라 전반적유럽나라 인민들속에서 불만과 반항을 자아냈다. 이러한 퇴폐적인 생활풍조는 일반대중뿐아니라 교회내부에서도 교회의 도덕적 및 행정적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강한 론조를 불러일으켰다.

더우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던 시대였다. 사람들은 새로운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모든것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현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받아들이었다. 현실에 접근하려는 그들의 태도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종교개혁을 먼저 제기한 인물이 에라스무스(1466-1536)이다. 네데를란드의 수도승인 그는 저서 《미침중찬양》(1506-1509), 《토론들》(1510년대)에서 무질서한 종교례식과 수도원의 엄격한 계율, 무능한 신학자들과 수도승들을 뺄싸게 공격하고나서 종교를 단순화하고 녀성들과 아이들도 쉽게 성서를 읽을수 있게 민족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종교철폐의 구호는 들지 못하였으나 그 개혁을 주장한것은 당시에 있어서 혁신적이였으며 그로 하여 프랑스의 모든 지식계층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문예부흥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종교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하게 제기되였다.

종교개혁운동은 신앙이라는 전통적인 범위를 뛰어넘어 현존문제들로 접근하였다. 개혁자들은 카톨릭교의 《정통성》을 거부하고 교회의 부정부패와 승려들의 무능성을 없앨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서 교회의 중간단위들을 없애고 사람들이 《성서》와 복음서에만 충실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스콜라학과 낡은 철학사상들에 등을 돌려대고 고시크예술을 부정함으로써 카톨릭교의 현존관념들에 항거하여나섰다. 또한 개혁자들은 지상세계에서의 인간의 처지와 지위, 개인과 도시와의 관계, 도시에서의 개인의 행동방향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사람들의 의식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다.

로마법왕청과의 결별을 선포한 도이칠란드의 종교개혁의 제창자인 루테르(1483-1546)의 단호한 립장과 토마스 뮌체르(1490-1525)의 지휘하에 일어난 도이칠란드농민 폭동은 프랑스종교개혁운동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운동이 초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전진하다가 점차 조

직화되어갔다. 운동초시기에 인문주의작가들과 종교개혁의 제창자들은 카톨릭교의 아성인 쾰른(종합대학)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서로 견제되었다. 인문주의자이자 종교개혁운동자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수 없는 현상이었다.

라블레, 돌레, 데 빠리에, 마르그리프 드 나바르를 비롯한 인문주의자들과 개혁운동자들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카톨릭교와 쾰른의 무지와 몽매, 부화방탕을 신랄하게 규탄하고 거기에 인문주의적리상을 대치시켰다. 특히 마로는 서한시들에서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되어온 베니스의 교회당들에 축적된 황금과 화려한 거리에서 방황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사회적부정의를 규탄하고 새로운 사상을 확대하는자들을 비난하였다.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운동은 16세기 30년대에 이르러 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그 주모자들은 스위스의 제네바로 망명하였다. 그때부터 제네바는 프랑스프로테스탄트교도들의 중심지로 되었다.

프랑스종교개혁운동의 대표자의 한사람이었던 깔뱅의 프로테스탄트교적립장이 보다 강경해지면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운동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깔뱅(1509-1564)은 자기의 저서 《그리스도교의 수립》에서 날카로운 어조로 종교례식과 스콜라학을 비판하고 왕권의 강화와 궁중귀족들에게 부여된 특전을 거부하는데서는 완강하였으나 인문주의문학을 가리켜 《나는 도대체 그것이 쾌락이 아니면 어디에 복무하는지 모르겠다.》고 격렬하면서 프로테스탄트교인문주의작가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가혹한 깔뱅교의 행위에 두려워난 대다수 인문주의자들은 종교개혁운동을 멀리하였으며 자기가 프로테스탄트교도라는것을 숨기었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트교도들속에는 인문주의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장 구종(1510-1566), 뫼에르 봉땅(1510-1570), 리쉬에(1500-1567), 앙드루에 듀 셰르쑈, 작끄 빠레, 자끄브 부델, 마르끄 뒤발 등은 조형예술분야에서, 클로드 구디벨, 작끄 부르라, 클로드 르첸, 작끄 모디는 음악분야에서, 마르그리프 드 나바르, 귀욤 게를(1507-1564), 작끄 그리뱅(1538-1570), 뫼오도르 드 배즈(1519-1605), 작끄 비앵브뉴, 루이 데 마쥬르(1515-1574) 등은 문학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다.

프로테스탄트교문인들은 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주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언어를 무기로 삼고 췌인 론리와 세련된 표현수법으로 자기들의 사상을 명백하게 표현하였다. 동시에 그들의 글은 프랑스어가 보다 더 명백하고 론리적이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렇듯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은 종교개혁운동과 비교적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었고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의 창작은 인문주의문학을 풍부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2.3. 부르쥬아적성격과 귀족적성격의 결합

인문주의문학은 일반적으로 부르쥬아적성격이 강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이 문학이 봉건적령주체에 맞선 도시들의 발전과 대봉건령주들의 특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항기세에 합류한 부르쥬아세력의 확대에 기초하고있고 또 선진적인 부르쥬아출신문인들에 의하여 추동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귀족적인 성격이 부르쥬아적성격에 못지 않게 강하였다. 이것은 16세기 프랑스에서의 사회발전의 특수성과 문인들의 사회적처지, 그들의 출신에 원인을 두고있다.

중앙집권적권력의 강화는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 귀족적성격이 부르쥬아적성격과 대등하게 나타나게 한 근본요인이다.

16세기에 왕권이 강화되고 행정권력이 집중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공직자계층이 출현하였다. 공직자계층에는 법관, 재정관들이 속하였는데 그들은 부유한 부르쥬아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승려들과 대귀족들의 특권을 반대하고 왕권의 중앙집권화를 지지하였다. 한편 그들은 저들의 재부를 리용하여 몰락한 귀족들의 땅과 함께 관직, 귀족칭호를 사들여 토지소유자 겸 행정관리, 귀족으로 되었다. 인문주의운동의 지지자들인 부르쥬아지들이 귀족으로 되고 왕궁세력으로 포섭되다나니 귀족계급과 부르쥬아세력간의 대립과 투쟁은 약화되었고 또 문학에서도 귀족적성격과 부르쥬아적성격이 혼탁되게 되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 귀족적성격이 지배하게 된것은 문인들의 사회적처지와 출신에도 원인을 두고있다.

16세기에는 대중의 문화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고 출판수단들이 발전하지 못한데다가 지적소유권도 없다나니 문인들의 생활처지가 매우 어려웠다. 당시 사회에서도 문인들은 독자성이 강하고 정의감이 높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운 생활처지로 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수 없었고 빈궁속에서 헤매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하여 그들은 창작도 하고 빈곤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수없이 자기들에게 생계비를 줄수 있는 보호자들을 필요로 하였다.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일부 귀족들은 문화를 모르면 귀족적권위를 잃을수 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프랑쥬아1세는 인쇄업의 발전으로 해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널리 전파되자 문화인들을 왕궁에 집결시키기로 하였다. 그는 인문주의자인 부데에게 왕궁학교를 설립하게 한 다음 자유주의적경향의 인물들을 교원으로 임명하는 등 인문주의운동을 일정하게 장려하였다. 이에 환상을 품은 문인들이 점차 왕궁으로 모여드는 바람에 왕궁은 사교활동의 중심지로, 문화생활의 거점처럼 되어버렸다. 대귀족들의 요구에 복종하다나니 그들의 작품들에서는 귀족적취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 궁중에 매이지 않고 작품들에서 부르쥬아적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 작가는 모리쓰 쎄브(1501-1564)와 작끄 벨르띠에(1517-1582)뿐이다.

16세기 후반기에 출현한 문인들은 모두 궁중에 뛰어들었다. 특히 《쁠레야드》파 시인들은 모두가 귀족가문출신이거나 부르쥬아출신의 귀족들이었다. 《쁠레야드》파의 우두머리인 롱싸르(1524-1585)는 국왕 프랑쥬아1세의 자식들의 시종으로서 궁중에서 살았으며 여러가지 외교직무들을 담당하였다. 조아킴 듀 벨레(1522-1560)는 유명한 귀족가문출신이였고 앙투안 드 바이흐(1532-1589)는 소귀족의 사생아였으며 뽕뽀스 드 피야르(1521-1605)는 매우 유족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밖에 에띠엔 조텔(1532-1573), 작끄 따유로(1527-1555)와 레미 벨로(1528-1577)도 귀족가문출신이나 살림은 빈곤하였다.

《쁠레야드》파의 시인들은 대체로 귀족출신들이다보니 비교적 관찮은 처지에 있었고 볼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실제로 자유롭고 다른 귀족들과 평등한 지위에 있는것은 아니였다. 그들도 저들나름의 재정적난관으로 하여 귀족들에게 매여야 하면서도 리념이 다른것으로 하여 배척을 당했던것만큼 고충이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귀족출신문인들과 부르쥬아출신문인들이 결합되게 되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지닌 인문주의리상의 공통성에 있었다. 비록 출신과 생활처지는 달랐지만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체의 노력으로 쟁취한 지식은 신분이라는 개념보다 더 귀중한것이였다. 그들속에서는 지식의 습득과 활용이 개인적능력에 달려있고 개인의 인격을

높여준다는 사상이 지배하였으며 그것으로 신분이라는 봉건관념에 도전해나섰다. 따유로는 《풍자시8》에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귀족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야유하였다. 이처럼 16세기 후반기 문인들속에서는 신분적차이를 무시하고 지식소유정도에 따라 인간을 평가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서서히 생겨나고있었다.

결과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는 동시대의 다른 나라 문학들에 비하여 부르쥬아적 성격과 귀족적성격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보다 강하였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귀족적 성격이 더 우세하였다고 볼수 있다.

## 2. 4. 내용과 형식에서의 통일

문학의 발전력사는 내용과 형식의 견지에서 볼 때 현실생활이 변화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탐구하고 개척해온 과정이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은 내용과 형식에서 사실주의원칙을 구현하였기때문에 프랑스문학사에서 첫 사실주의문학사조로 될수 있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은 무엇보다먼저 16세기 프랑스현실과 인민들의 지향을 진실하고 생동하면서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내용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나라들에서 인문주의문학은 귀족들과 교회승려들의 위선과 패륜 패덕, 부패무능성, 종교적금욕주의 그리고 새로 자라나기 시작한 부르쥬아적관계의 해독성, 지상생활의 아름다움과 인문주의리상향에 대한 문제 등을 기본주제로 제기하고 당시 사회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착취하던 지배계급과 사회의 악덕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문학에서는 주제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지 못하다나니 부패한 사회현실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적비판도 예리하지 못한 제한성들이 나타났다. 특히 적지 않은 작가들이 종교문제를 옳바로 다루지 못하였고 인민대중의 생활과 운명문제는 거의나 제기되지 못하였다.

내용적측면에서의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혁신은 우선 다른 나라들의 같은 문학에 비하여 생활반영의 폭이 넓어졌다는데 있다. 그것은 당시 프랑스의 현실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고 동시에 이 나라 작가들이 자기 나라 현실에 대한 파악이 깊고 현실을 여러 각도에서 반영하려는 노력이 컸기때문이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는 반종교주제가 교회와 승려들의 위선과 패덕, 무능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전쟁의 파국적후과, 종교교리의 허황성, 금욕주의의 해독성에 대한 문제에도 확대되었다. 롱싸르(《담시들》), 도빈네(《비극적인것들》) 등을 비롯한 시인들은 자기들의 시에서 지배계급의 권력야망으로 인한 종교전쟁과 그 파국적후과를 주제로 제기하였으며 데 빼리에(《새로운 휴식과 즐거운 경구들》), 라블레(《가르강튀아와 뿔따그뤼엘》), 드 비넬(《100편의 새로운 단편들》) 등은 종교교리의 허황성과 금욕주의의 해독성을 주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까밝히는데로 집중하였다.

봉건사회의 부패성에 관한 문제도 귀족세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프랑스왕권과 봉건사회전반에 존재하는 비인간적탐욕과 여러가지 사회악을 폭로하는데로 나아갔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는 봉건군주들의 무제한한 전횡과 탐욕, 허황한 과학연구, 재판계의 무지와 치부욕, 악착한 세금제도, 무능한 교육제도 등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주제들이 설정되어 프랑스봉건사회의 반동성이 여지없이 폭로되고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장편소설 《가르강튀아와 뿔따그뤼엘》(1532-1564), 단편소설집 《100



편의 새로운 단편들》(1505-1515), 《엠평메론》(1559), 《새로운 휴식과 즐거운 경구들》(1558) 그리고 롱싸르, 도빈네, 듀 벨레, 바이흐의 시들을 들 수 있다.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그들의 긍정적 특질들에 대한 탐구도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자기 작품들에 인민들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고 그들의 긍정적 특질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하층인민들의 처지와 운명문제에 깊은 주의를 돌림으로써 현실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할 수 있었고 문학의 사회적기능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는 인문주의리상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라블레는 소설 《가르강튀아와 뽕따그뤼엘》에서 당시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온갖 압제와 구속을 모르고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는 《사원》과 인문주의적 특질을 소유한 왕들이 통치하는 이상국가에 대한 공상적인 화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상향에 관한 그의 주장은 계급적 성격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하여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당시 인민들의 지향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하여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혁신은 또한 부정적인 것을 비판하고 긍정적인 것을 옹호하려는 정신이 매우 강하다는 데 있다.

유럽인문주의문학일반을 놓고 보면 부정비판과 긍정옹호에서 철저하지 못하였다. 많은 작가들이 종교교리를 비판하면서도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였으며 봉건사회의 부패한 현상들을 비판하면서도 미련을 표시하였다. 더우기 하층인민들의 긍정적 특질에 대해서는 거의나 보여주지 못하였다.

프랑스인문주의작가들은 현실비판정신이 매우 강하였다.

대표적인 실례로 장편소설 《가르강튀아와 뽕따그뤼엘》에서 라블레는 교회와 종교교리를 비판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종교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교가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지배계급의 불순한 의도로부터 산생된 것이고 그리스도교리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거짓말들로 가득찬 무익한 것이라는 것, 교회는 그것을 리용하여 중세기 전기간 인민들을 무지와 몽매에 빠뜨리고 불행과 고통만을 주었다고 비판단죄하면서 인민들에게 종교에 속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서 종교전쟁의 반동적 본질을 까밝히고 카톨릭교의 아성인 로마바티카노궁정을 《정신병자》들의 소굴로 규탄하였으며 모든 수도원들을 파괴하고 그대신 이성적인 《텔렘사원》들을 건설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그는 봉건군주들의 끝없는 탐욕과 허영심, 그로 인한 략탈적인 침략전쟁, 인민들을 도탄에 몰아넣는 가혹한 봉건적재판제도와 악착한 세금제도, 온갖 협잡과 기만으로 가득찬 미신행위와 허황한 과학연구 등 부패한 사회현실을 랭혹하게 날날이 말가놓았다.

도빈네(1552-1630)는 시집 《비극적인 것들》에서 왕을 봉건사회에서 빚어지는 모든 불행의 장본인으로 략인하였고 샤뮈네(1571-1635), 몽뎀뉴 등은 왕을 《식인종》으로 단죄하였다. 장 보댕, 라 보에띠를 비롯한 일부 문인들은 왕을 때려엎고 군주제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정신은 다른 나라들의 인문주의문학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인문주의작가들은 긍정을 옹호하는데서도 비교적 열렬하였다.

프랑스인문주의작가들은 같은 《3신분》에 속해있어도 착취자인 부르주아지들과 착취의 대상인 하층인민들을 갈라보고 착취자들의 본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는 한편 하층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깊은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그들이 지닌 교상한 인간적 품모

와 근로정신을 높이 찬양하였다. 마로의 담시 《그의 친구 사자에게》, 드 화이유의 소설 《레옹 라돌피령감의 시골이야기》(1548), 벨로의 시 《전원시》(1572)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라블레는 소설에서 《텔렘사원》과 거인왕들이 통치하는 유토피아에서의 인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상세하게 펼쳐보이면서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는 또한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부패한 봉건사회현실을 그와 대치시켜 비판폭로함으로써 인문주의리상의 정당성을 열렬히 긍정하였다.

인문주의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들에서 신을 몰아내고 생활에 대한 강한 열정과 지향을 가진 현실적인 인간들을 형상의 중심에 내세우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기능을 높일수 있었다.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은 다음으로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발전풍부화함으로써 문학의 형식적측면에서도 혁신을 가져왔다.

우선 프랑스인문주의자들은 창작에서 민족어를 사용하고 언어형상에서 사실주의적원칙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고대모방》의 미명하에 일부 작가들속에서 언어까지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문주의자들은 이러한 무질서와 사대주의적경향을 반대하고 프랑스어를 더욱 풍부화하고 발전시킬것을 강력히 주장하여나섰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한것이였다.

동시에 인문주의자들은 언어형상에서 사실주의적원칙을 살릴것을 요구하였다.

레노 르 께는 시집 《유람정원과 수사학의 꽃》(15세기말)의 머리글에서 《매 인물에게 그에 맞는 언어를 주어야 한다. 교회인물이라면 교회언어를 쓰게 하고 농사꾼을 형상한 인물들 또한 도시든 농촌이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 미장공들, 목수들, 벌목공들, 재무관들은 자기 고유의 수단을 쓰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수단》이란 언어를 의미한다. 작중인물들의 처지와 환경,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부여할데 대한 그의 주장은 사실상 인간과 그 생활을 현실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다분히 내포하고있다.

극작가들은 희극의 언어를 산문화할것을 주장하여나섰다. 이전까지 시화된 희극의 언어는 형상에서 진실성을 약화시켰다. 프랑스극작가들은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해 희극의 언어를 산문화하거나 적어도 산문에 거의 가까운 12음절식시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장 드라 파유는 프랑스에서 희극대본을 산문으로 제일먼저 썼으며 라리에, 당 바즈, 푸르네브 등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16세기에 프랑스어는 풍부화되고 문학적표현력도 더욱 높아졌으며 언어는 현실에 가깝게 접근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인문주의자들은 문학형태와 양식들의 특성을 명확히 밝히였다.

그들은 민족적형식의 시양식들가운데서 낡고 뒤떨어진것은 대담하게 버리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시양식들을 적극 발양시킬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로부터 그들은 론도, 발라다, 단시, 궁중가요를 배격하고 쏜네트, 3행시양식을 적극 받아들였다.

그들은 비극과 희극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 그 규범들을 밝히였다. 작가 뮈르띠에는 저서 《프랑스시학》(1555)에서 《비극과 희극은 서로 다른것이다. ... 희극은 즐거운 해결로 끝나지만 비극은 언제나 싸움으로 비참하게 또는 보기 끔찍하게 끝난다.》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하여 비극의 《등장인물들은 상류출신》이라는 규범을 가진다고 밝히고나서 비극은 5막으로 만들되 등장인물들은 3명정도로 하며 해결에 가깝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것, 격에 어울리지 않는 사건들은 보여주지 말며 합창을 도입하고 《고상한》 언어를 사

용해야 한다고 하는 등으로 종전의 극리론을 풍부화하였다.

비록 고대리론가인 호라티우스의 견해를 많이 모방한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리론은 초기비극문학에서 비규범적인 현상들이 나타나 비극인지 희극인지 가려보기 힘들었던 조건에서 비극의 특성을 비교적 명백히 규정하고 비극의 줄거리를 간결하게 함으로써 관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장 드라 파유(1540-1607), 라자르 드 바이프(번역작품 《엘렉트르》 1537), 샤를 에스띠엔(《시학》 1543)도 비극창작과 관련한 일련의 규범들을 내놓았다.

희극에 대한 견해들도 제시되었다. 일부 문인들은 희극은 《중간층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을 묘사하는 극형태라고 규정하고 인위적인 사투리나 상스러운 표현들을 제거하고 《응당한 수준의 정확하고 순수한 프랑스어》를 사용할것을 충고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희극을 하층민들이나 좋아하는 천한것으로 여기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작품의 문화성을 보장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쌍말》을 없앤다는 미명하에 모든 인민적인 언어의 사용을 거부하고 《유식계층》의 언어를 규범적인 언어로 내세운것은 제한성으로 된다.

또한 프랑스인문주의자들은 자기 인민의 생활과 감정에 맞는 특색있는 사실주의적창작수법들을 적극 탐구리용하였다.

풍자의 수법은 프랑스인문주의작가들속에서 널리 리용되었다. 이 시기의 문인들치고 풍자의 수법을 리용하지 않은 작가는 별로 없었다. 풍자의 수법은 이미전부터 특히 도시문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탐구리용되었으며 이것은 인문주의문학에서 사실주의적풍자수법으로 발전풍부화되었다. 인문주의작가들은 부패한 프랑스봉건사회를 폭로비판하는데서 풍자를 주요한 무기로 삼았으며 결과 인문주의문학에서는 특색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

환상의 수법은 일부 작가들속에서만 활용되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통치계급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자기들의 비판적태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환상의 수법으로 에둘러 작품을 썼다. 라블래의 장편소설 《가르강튀아와 뽕따그뤼엘》은 당시에 사실주의적환상의 수법을 훌륭하게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서 후기 환상문학에 무시할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이밖에도 프랑스인문주의문학에서는 비유법, 의인법, 대조법, 반복법, 대구법 등 다양한 표현수법들을 탐구리용하였다. 물론 이러한 수법들은 이전시기부터 리용되어온것이지만 프랑스인문주의자들은 현실생활에 토대하여 자기 인민의 생활과 민족적감정을 보다 훌륭히 반영하기 위한 방향에서 이러한 수법들을 적극적으로 탐구리용하였다.

프랑스인문주의자들은 또한 시창작에서 운을 중시하고 운률을 엄격히 지켜 운문의 특성을 잘 살리었다. 당시에는 운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범이 없었다. 듀 벨레, 뽀르띠에를 비롯한 인문주의시인들은 시는 산문과 달리 박자와 선률에 기초한 음악성을 띠는것만큼 운을 잘 맞추고 남성운과 여성운을 정상적으로 교차시키면서 등운률의 규칙을 지키었으며 음과 의미간의 조화를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장 드라 파유는 저서 《그리스어나 라틴어처럼 프랑스어로 시를 창작하기 위한 방법개요》에서 운률시를 주장하였고 조델, 니폴라 드니조, 빠스끼에 등은 운률시를 썼다.

이처럼 민족어에 기초한 문학어의 수립과 언어형상, 대담한 풍자와 환상의 리용, 다양한 문학형태와 운률법의 탐구 등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문학의 형식을 혁신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은 내용에 있어서 사실주의문학으로서의 표징을 갖추게

되었으며 문학의 형태와 형상창조의 수법에 있어서도 근대문학의 면모를 일정하게 나타내게 되었다.

### 3. 결 론

론문에서는 16세기에 발생발전한 프랑스인문주의문학의 특징들을 당시에 인문주의가 존재하였던 일부 나라들의 인문주의문학과 대비속에서 서술하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문학사과목들의 교육내용을 혁신하자면 문학사조와 작품들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철두철미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외국문학연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외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에게 보다 깊이있고 폭넓은 지식을 줌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대외정책을 훌륭히 받들어나갈수 있는 유능한 혁명인재들로 키워내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외국문학, 유럽인문주의문학, 프랑스인문주의문학